

■ 주요 뉴스: 미국 나스닥지수, 고평가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 일사적 주가 조정 의견도 제기

- 영국 재무장관, 광범위한 증세 시사. 파운드화 가치는 7개월 만에 최저
- 중국 정부, 지방정부 부채 직접 관리 강화할 방침. 인민은행은 국채 매입 재개
- 일본 총리, 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대 추진. AI 등 전략 분야 성장도 촉진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증시 고평가 논란,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이 영향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버블 논란, 주가 조정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3/4분기 기업 실적 경계감,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내 추가 금리인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세 지속
유로화 가치는 0.3% 하락, 엔화 가치는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위험 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41.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3.7원, 0.40% 상승). 한국 CDS 상승

		11/4일	11/3일	전일대비			11/4일	1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71.6	6,852.0	-1.17%	국채 금리 10y	미국	4.09%	4.11%	-3bp
	유럽	570.58	572.28	-0.30%		독일	2.65%	2.67%	-1bp
	중국	3,960.2	3,976.5	-0.41%		영국	4.43%	4.44%	-1bp
	일본	51,497	휴장	-1.74%	CDS 5y	한국	23bp	22bp	+1bp
	한국	4,121.7	4,221.9	-2.37%		중국	42bp	40bp	+2bp
	달러지수	100.22	99.87	+0.34%	위험 지표	EMBI+	-	275	-
환율	유로화	1.1482	1.1520	-0.33%		VIX	19.00	17.17	+10.66%
	엔화	153.67	154.22	+0.36%		WTI유	60.56	61.05	-0.80%
	위안화	7.1295	7.1213	-0.12%	원자재	구리	492.6	506.9	-2.82%
	원화	1,437.9	1,428.8	-0.63%		금	3,932.1	4,001.4	-1.7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나스닥지수, 고평가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 일시적 주가 조정 의견도 제기

- 11/4일 미국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다우지수 47,085 -0.5%, S&P500지수 6,772 -1.2%, 나스닥지수 23,349 -2.0%). 이번 하락은 그 동안의 주가 상승에 따른 증시 고평가 가능성, AI 거품론 등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기 때문.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기술 관련주 중심으로 낙폭이 심화
- 금융권 전문가들의 발언도 투자심리 악화를 유도. Capital Group의 마이크 기틀린 CEO는 기업 이익이 양호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일례로 S&P500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3 내외인데,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20)에 비해 15% 높은 수준. 나스닥100 기업의 경우 28로 '22년(20)에 비해 40% 높은 상황
- Morgan Stanley의 테드 픽 CEO도 주가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미국의 정책 실수 위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경고. 또한 유명 투자자인 Scion자산운용의 마이클 버리 CEO가 대표적인 AI 관련 기업 Nvidia와 Palantir에 대규모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소식도 주가 하락에 일조
- 다만 이번 하락이 일시 조정이라는 의견도 상당. BofA는 증시에 단기 위험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 피력. Wells Fargo 역시 장기 투자자들은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패소해도 대체 수단 존재. 섯다운은 사상 최장 기록 근접

- 관세 부과 관련 심리를 앞두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승리를 확신하며, 정부가 패소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다고 강조. 11/5일 대법원은 관세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 한편, 11/4일 연방정부 섯다운은 35일째를 맞아 트럼프가 1차 임기에서 세웠던 최장 기록과 동일. 다만 예산 관련 여야의 의견은 여전히 상이. CNN 등에 따르면, 100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점증. 트럼프 대통령은 의결 절차 수정 등을 통해 상원에서의 예산안 통과를 원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

■ 영국 재무장관, 광범위한 증세 시사. 파운드화 가치는 7개월 만에 최저

- 리브스 장관은 세출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때 공공 서비스 부문의 긴축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출 축소가 아닌 증세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 다만, 리브스 장관은 향후 증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

■ 중국 정부, 지방정부 부채 직접 관리 강화할 방침. 인민은행은 국채 매입 재개

-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총괄할 '채무관리사(債務管理司)'를 신설한다고 발표. 해당 부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를 확인하고, 국채·지방채 발행 한도, 상환 관리, 외채 운영, 은닉 부채 등을 점검할 전망
- 한편, 인민은행은 10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200억위안 규모의 국채를 순매수. 10/27일 판공성 총재는 국채매입 재개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언

■ 중국 주미 대사, 미국에 대만 문제·인권·민주주의 등 4개의 레드라인 제시

- 셰펑 대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개념 적용, 인권, 중국의 정치 체제 및 개발 경로 등 4개의 레드라인이 존재한다고 발언.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중국을 방해하지 말고 정권교체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

■ 일본 총리, 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대 추진. AI 등 전략 분야 성장도 촉진할 방침

-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조 아래 전략적인 지출을 시행하겠다고 강조. 구체적으로 경기부양을 통한 소득 확대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세율 인상 없는 세수 증가를 달성하겠다고 설명. 또한 AI, 반도체, 조선, 양자 등 17개 전략 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첨언
- 한편, 호주 중앙은행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3.60%로 동결.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등으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S&P 글로벌 종합 PMI, ADP 민간고용, ISM 서비스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美中 갈등 격화될 가능성, 각국의 공급망 확보 노력 등이 요구 - Financial Times

(US-China escalation is here to stay)

- 美中 양국은 무역합의를 도출. 그러나 이는 전술적 데탕트(détente)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향후 추진 일정과 성과는 불명확.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미국은 중국이 경기침체 회피를 위해 무역전쟁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등 양국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소지
- 특히, 중국은 對美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일시 해제했으나 정치적 위험 회피 성향의 내부 조직을 고려할 때 관련 절차는 지연될 가능성. 이는 미국에게 악의적인 신호로 인식되어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은 美中갈등 격화로 인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에 대비할 필요

■ 미국 소비, 카드 지출 둔화소비재 기업 이익 감소 등 부진 신호 발신 - Financial Times

(Is the US consumer going soft?)

- 3/4분기 S&P500 기업은 매출과 이익 증가율(각각 8%, 11%)은 양호했으나 소비재 기업의 매출(3% 성장) 및 이익(1% 감소)은 저조. 이에 소비자의 재무 건전성 악화 의구심이 증가. 특히 중산층 이하 및 청년층에서의 어려움이 관측
- 또한, 최근 주간 카드지출 증가율이 올여름 이후 최저 수준(0%근접)을 기록한 점을(BofA) 참고하면 소비 침체 가능성도 제기. 다만 연방정부 섣달의 전 8월 소매판매가 비교적 양호했고, 소비재 기업도 견고한 성장을 보였기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 정부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를 기대하면서 소비자 현황 예의주시할 필요

■ 일본의 대규모 공공부채, 금리 상승 유도하며 기업 위기 자극할 우려 - 블룸버그

(Japan's \$9.4 Trillion of Debt Looms as Corporate Strains Appear)

- 올해 일본 공공부채는 145조엔(GDP의 230%)으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IMF). 이에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과 함께 국채금리 상승이 예상. 이는 기업에 차입 비용 증가를 야기하며 큰 부담으로 작용.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
- 또한, 높은 부채 수준과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험은 정부의 기업 지원 능력을 제한. 특히, 최근 트럼프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업체 등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과도한 차입을 동원한 AI 부문 M&A 급증도 문제(Nomura)

■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 연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 - 블룸버그

(The Fed's wait-and-see approach to AI can't last)

- AI는 주식시장 활황과 투자지출 증가를 통해 수요를 자극하는 반면, 기업의 고용 둔화를 초래하는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은 상충. 이처럼 상반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연준은 관망세를 유지
-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중립금리 상승과 물가 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AI 혁명으로 특정 유형 노동자들이 급격히 대체될 경우 실업과 불평등이 심화될 소지. 또한 AI 선도기업의 독점 심화와 금융시장 오류가 증폭될 위험도 내재
- 결론적으로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위험은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규제·조세·노동시장 개혁, 교육 혁신 등 광범위하고 정교한 정책과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

■ 미국 대법원, 관세 재판 관련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용성의 기로에 직면 - 블룸버그

(Interesting trade-offs on trade await the Supremes)

■ 미국 증시, CAPE(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 반영 시 향후 기대 수익은 저조 - WSJ

(This Famous Method of Valuing Stocks Is Pointing Toward Some Rough Years Ahead)

■ 중국의 수입 확대 정책, 일부 국가 대상 무역불균형 우려 불식이 목적 - 블룸버그

(China Launches Import Promotions to Address Imbalance Conce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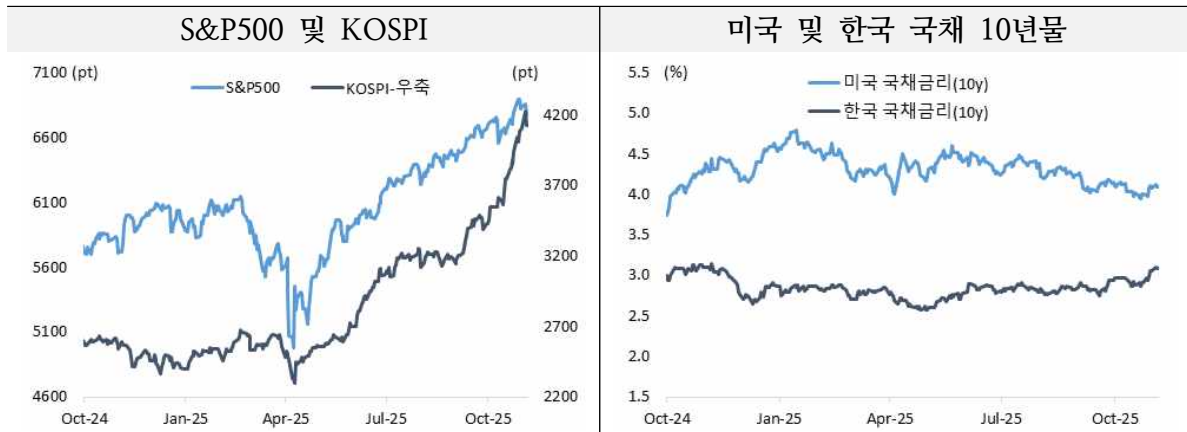
■ 중국 정부,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높이기 위한 목표 재강화 - 블룸버그

(China Re-Ups Its Goal of an Internationalized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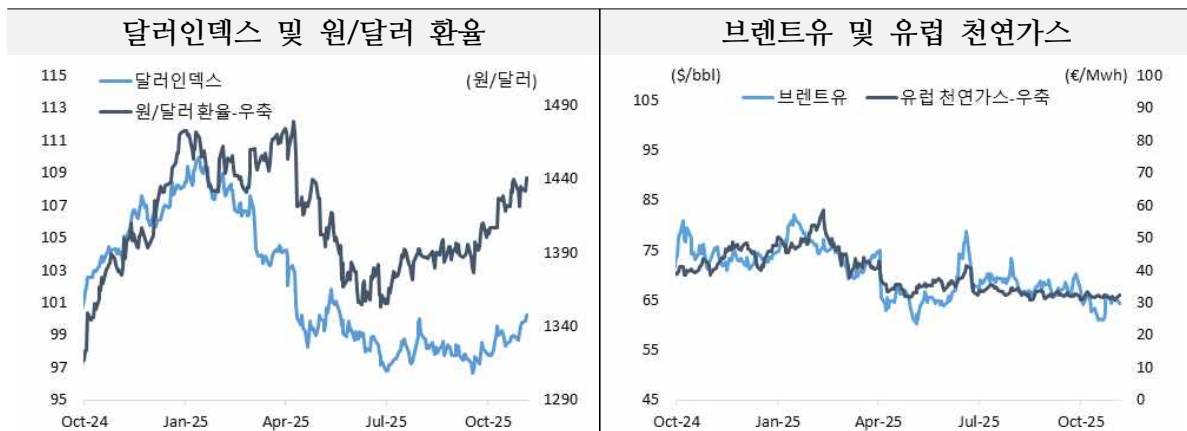
■ 아시아 증시, 높은 AI 의존도 등으로 미국 AI 침체에 취약 - Financial Times

(Asian markets' reliance on AI boom raises 'bubble' fea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